

순천대·목포대 각각 의대 두고…동·서부권에 국립대병원 추진

전남도,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위한 MOU 체결
내년 2월 각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될 듯…의료공백 해소 기대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동·서부권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의 통합이 임박함에 따라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정원 배정과 병원 위치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의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과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지사와 두 대학 총장은 협약을 통해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하고 각 캠퍼스 총장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대학통합 이후에도 각 대학 총장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의과대학과 통합대학교 대학본부를 두 대학에 분리, 배치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전남 동부권·서부권에 하나씩 국립대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정부 재원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두 대학의 통합이 이달 중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마련됐다.

두 대학의 통합을 심의중인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는 최근 7차 심사를 마쳤다.

심사위는 11일 8차 심사와 다음 주중 마지막 9차 심사를 거쳐 두 대학의 통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직전 두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교명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의 통합이 조망기에 들어가면서 의대정원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전남도는 2027년도 개교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국립의대의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서 결정된다. 지난 8월 첫회의를 개최한 추계위는 현재까지 10차 회의를 마쳤다. 추계위는 지난달까지 격주로 열어 오던 심의를 이달들어 매주 열며 속도를 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열리는 11차 회의를 끝으로 의대정원의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내년초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경 각 대학별 의대정원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록 지사는 두 대학 총장에게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대응 등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학통합과 의대정원 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가 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천년 고찰 장흥 보림사의 비자림 복원을 시작한다. 보림사 비자림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 ‘천년 고찰’ 보림사 비자림 복원 나선다

국비·지방비 40억 투입 30ha 규모 복구…2028년 목표

전남도가 천년 고찰 보림사의 비자림 복원사업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8년까지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30ha 규모의 비자림 복구에 나선다. 우선 비자림 복원 사업에 국비 28억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한다.

보림사 비자림은 사찰 창건 당시 신라시대에 식재해 이후 울창한 숲을 이뤘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찰 축소용으로 이용되고 주변 생태계가 쇠

퇴하면서 일부만 남게 됐다.

보림사 비자림은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숲’에 선정되기도 했다.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수종으로 생장이 느리고 오래 살아 조식이 치밀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진 촬영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

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림사는 보호림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육에 위협적인 식물을 제거해 오면서 관리돼 왔는데, 이번 복원사업 선정으로 대규모 비자림을 확대해 옛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보림사와 문화유산청, 장흥군,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타당성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원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능 영어 난이도 실패 책임…오승걸 교육평가원장 사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일 전직 사퇴했다. 취임 2년 4개월 만이다.

오 원장은 이날 “영어 출제 경향이 절대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입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임의 변을 밝혔다.

이로써 평가원은 2023년 6월 모의평가 당시 ‘킬러문항’ 이슈로 물러난 이규민 전 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

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쳤다. 이는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대평가 1등급 기준인 4%에도 미치지 못해 ‘불영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으며, 평가원은 재발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호남 끝까지 쟁긴다”

▶1면에서 계속

박근택(광산갑) 의원은 내년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광주 서부와 서해안을 잇는 신산업선 반영을 요청했고, 정준호(북구갑)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재와 서남권 산업청 개설을 건의했다.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청년이 고향을 등지지도 않도록 광주와 호남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은 “이번 예산 증액은 민주당이 약속을 현실로 만든 결과”라며 “광주가 민주·인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정경래 대표는 “오늘 건의된 사항은 호남발전특위에서 계속 논의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호남이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이 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고용노동청·대학·산업계 관계자 회의…핵심 운영 계획 확정 언어교육 강화·취업박람회 정례화·비자 발급 구비 서류 간소화 등

광주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의 생존과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유학생 유치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핵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장과 조진형 전남대 대외협력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지역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 20

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잡았다.

2026년 5대 핵심 협력 과제로 ‘아세안 국가 유학생 집중 유치’, ‘한국어센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언어 교육 강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확대’, ‘유학생 취업박람회 정례화’, ‘비자 발급 구비 서류 간소화’ 등을 선정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 연

계 교육은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2000명을 유치하고, 이 중 10%를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유학생 종합지원계획’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광주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자원”이라며 “유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표 일자: 2025년 12월 11일

분할합병공고

(건설업 분할 합병공고 및 주권재국공고)

주식회사 그랜드건설(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건설업) 분할하여 부설 건설사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에 합병하고자 함에 따라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아래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자의 주주는 해당사의 주권을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1. 분할 합병할 건설업

업종명	입종등록번호	등록일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K2016-09-01	2016-02-17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2016-02-17

2. 분할 합병 예정일: 2026년 01월 15일경

3. 이해관계인 의견 및 주권재국
기간: 2026년 01월 11일 까지

나. 제출주소
-갑: 주식회사 그랜드건설(002-381-5949)
광주광역시 서구 용서로253번길 18 (세하동)
-을: 부설건설사업 주식회사(002-510-5949)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03호 (매월동)

4. "갑" 대표자: 이 병 화
상 호: 주식회사 그랜드건설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용서로253번길 18 (세하동)

5. "을" 대표자: 정 명 화
상 호: 부설건설사업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03호 (매월동)

정 정 공 고

본지 2025년 10월 31일자 게재된 유한회사 금성물류와 유한회사 금성화물합병공고중, '외식주주총회 결의'를 '사원총회결의'로 정정 공고함.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광 266-1920 •문: 홀 266-199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4171 •영: 신 571-7658 •오: 치 266-7801
•용: 통 433-1503 •우: 신 430-1503

동구

•남: 광 673-6836 •동: 망 222-9054 •동: 부 225-6001
•용: 망 222-9054 •용: 망 222-8171

남구

•남: 광 673-6836 •백: 은 651-1833 •봉: 선 673-6836
•용: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92-5789 •상: 무 372-72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봉: 임 603-0311
•화: 정 393-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국 950-1920 •청: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신 944-0444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음